
the Black BULLETIN

NOVEMBER
2014

BLACK REPORT

11월호 테마는 'DESIGN NEW WAVE'입니다.

TRAVEL NOTES

터키의 예술적 도시 이스탄불 여행을 제안합니다.

THINGS TO DO

제프 쿤스 회고전, 파보 예르비 내한 공연 등을 알려드립니다.

SHOPPING PICK

블랙 회원을 위한 해외 호텔 프로모션과 제휴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YOUR CARD AT A GLANCE

블랙카드 관련 뉴스와 공지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DESIGN REVOLUTION

오랜 시간 디자인 시장을 장악한 ‘디자인=북유럽’ 시대에 안녕을 고하고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디자인 시장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지역의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본다.

나무·대리석·브론즈 등을 소재로 하여 단순 명료한 커팅으로 면에 강력한 악센트를 준 디자인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컬러는 검은색·흰색·크롬·골드 등을 사용하여 보다 강렬해졌으며, 두고 보는 디자인이 아니라 실용성에 중점을 둔다. 이것이 바로 최근 디자인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키워드다. ‘디자인은 곧 북유럽’이라는 오래 묵은 디자인 경향이 보다 다양한 범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디자인의 카테고리 다채로워진 만큼 다양한 지역 출신 디자이너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중동 출신 디자이너가 그 중심에서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 허브가 된 중동

제3세계 디자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역동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 지역이다. 과거와 현재를 적절히 버무려 흥미롭고 전위적이며 역동적인 문화·예술 현장으로 변모한 덕분이다. 중동 지역이 하루아침에 문화·예술의 루키가 된 것은 아니다. 각 지역 문화·예술 학교나 컬처 센터 등의 활발한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현재 중동 지역의 성장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디자인에 친숙한 세대가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

칼리드 스텔라르는 아랍 에미리트의 Maraya Art Centre에 자신의 가구 디자인과 동일한 공간 구조물을 만들어 전시했다.



중동 남성의 터번에서 영감을 받은 카트린 그라일링의 비도운 소파 컬렉션.

카트린 그라일링은 중동 현지인의 좌식 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편하게 앉고, 기대어 누울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가구 디자인을 선보인다.

구나 인테리어 소품을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정서적 물건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두바이는 중동 지역을 글로벌 디자인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비중 있는 역할을 해왔다. 두바이에서는 매년 아트 위크(Art Week)라는 타이틀 아래 지역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마디나트와 미나아살람에서 열리는 아트 두바이(Art Dubai), 바스타키아에서 열리는 시카(Sikka), 현대 가구 디자인 전시회인 디자인 데이(Design Day), 아부다비 아트 파운데이션(Abu Dhabi Art Foundation)에 이르기까지 매달 틈틈이



아트와 디자인 관련 행사가 열리는데, 이를 통해 문화적 내공을 쌓은 덕분이다.

요즘 중동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레바논 출신의 갓산 살라메(Ghassan Salameh)와 두바이 출신의 가구 디자이너 칼리드 스하파르(Khalid Shafar)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중동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결과물은 지극히 모던하고 심플하며, 디자인과 실용성의 경계를 적절히 넘나든다는 것이다.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의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지만 이를 현대적 미감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 디자인 마니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공통분모는 구시대적 유물로 여기던 수공예, 산업과는 동떨어진 듯한 예술이나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상업적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수공업 시대에 전통적 가구 제작에 사용한 소재와 기법을 현대 디자인에 과감하게 적용해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한 정신이 깃든 감성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19세기 중반 가구의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레디메이드(Ready-made)에 대한 싫증과 더불어 아트 퍼니처에 대한 가구 브랜드들의 흥미가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빠르게 소비되는 저렴한 물건보다 잘 만든 물건을

구입해 오래도록 곁에 두고 사용하는 것을 환경친화적인 미덕으로 생각하는 추세에 따라 현대 디자인과 공예 기술을 적절히 조화시켜 만든 물건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리드 스하파르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디자이너다. 가구 디자인을 주로 하지만 개인전도 꾸준히 열고 있어, 작가주의 디자이너라 불리곤 한다. 몇 해 전 '더 파빌리온 다운타운 두바이'(The Pavilion Downtown Dubai)에서 열린 디자인 작품전이 그를 성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작가의 고향인 두바이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 나예프 프란시스의 퍼니처 부티크, 'Made in Lebanon' 가구를 만날 수 있다.





크기와 높이, 수납장 개수를 필요에 따라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갓산 살라메의 철제 선반.



중동 지역 최고의 디자이너로 꼽히는 갓산 살라메는 구조적이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다.



선반을 슬라이드로 이동할 수 있게 디자인한 책장 (왼쪽)과 중동의 역동적 라이프스타일에 영감을 얻은 옷걸이(오른쪽). 모두 칼리드 스텐파르의 작품이다.

의 도시 개발 전후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가구 디자인으로 디자인과 현대미술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갓산 살라메는 내전이 끊이지 않은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다. 그 때문인지 그의 작업은 늘 'Fireworks & Explosions'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평소 "레바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나의 디자인을 통해 변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작품의 주제로 천착해온 'Fireworks'는 그래서 내전을 겪어온 디자이너의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유독 조명 디자인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제3세계 디자인이 끼친 영향

중동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지인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독일 디자이너 카트린 그라일링(Katrin Greiling)은 많은 시간 현지인과 일상을 함께하며 그들 특유의 색채와 패턴 등을 관찰했고, 이를 비도운 컬렉션(Bidoun Collection)으로 표현했다. 이것이 진정 중동 특유의 컬러와 소재, 현지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인지 의문들 정도로 지극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

인이 인상적이다. 특히 소파 시리즈는 중동 남성이 머리에 쓰는 터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러 개의 매트리스를 레이어링하는 형태로, 패브릭은 중동의 텐트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아부다비에 스튜디오를 두고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병행하는 AK 디자인 스튜디오는 디자인 캠퍼디션(Design Competition) 2014에서 '오토 데스크'(Auto Desk)로 커머셜 디자인 부문 우승을 거머쥐며 다시금 명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여러 명이 효율적으로 앉을 수 있는 큼직하고 실용적인 테이블을 디자인해 사무실 내 회의 공간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